STUDY KORE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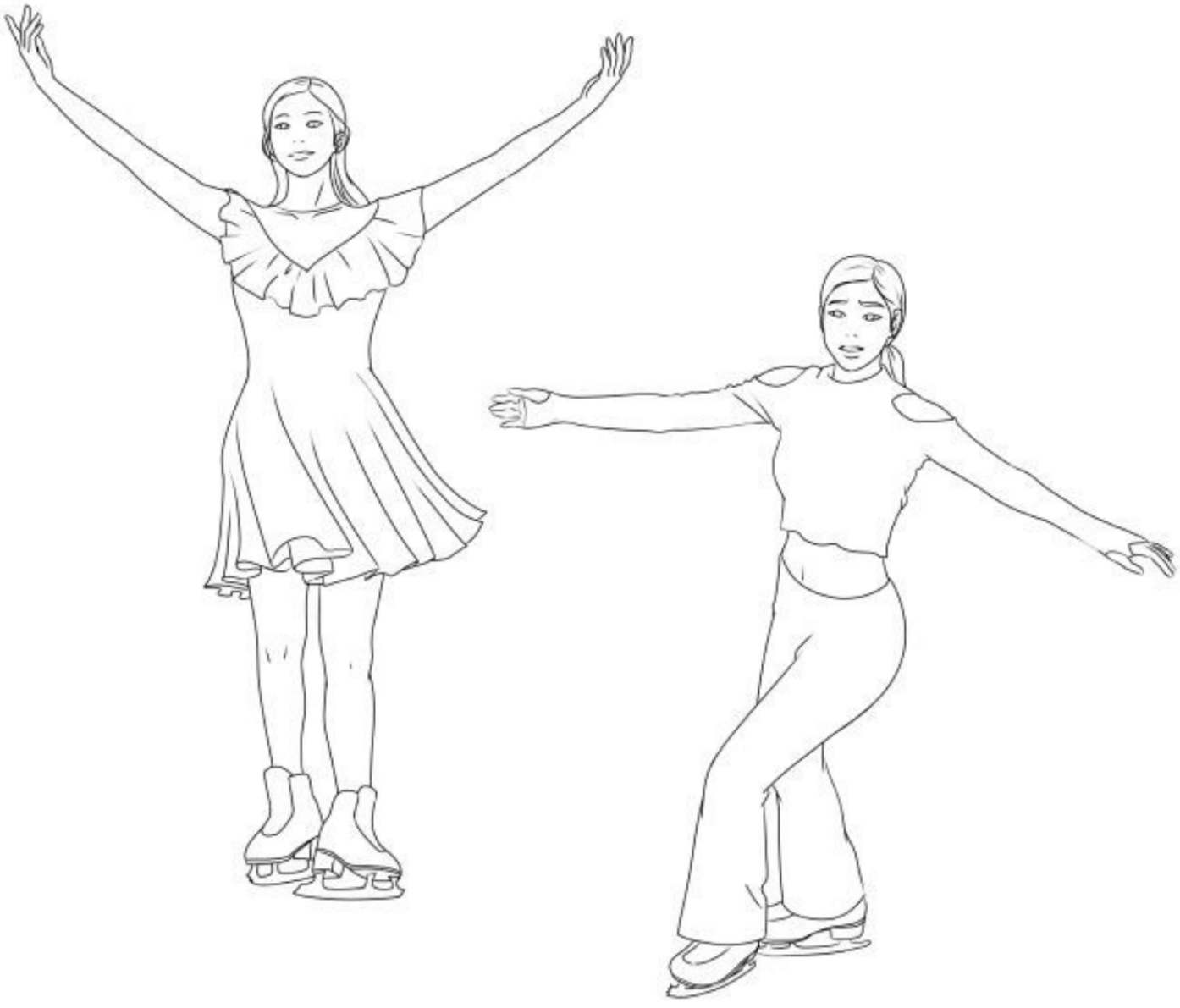
북미

한글학교
역사문화 수업자료

스포츠선수

활동지 1

다음 그림의 스케이트복을 아름답게 색칠해봅시다.



활동지 1

다음의 손흥민 선수의 별명들과 설명을 알맞게 연결해봅시다.

소니 (Sonny)	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생긴 별명이다.
손세이셔널 (Sonsational)	영국에서 뛸 때 붙은 별명으로 '선샤인(sunshine)'에서 따왔다.
손샤인 (Sonshine)	독일에서 뛸 때 붙은 별명으로센세이셔널 (sensational)'에서 따왔다.
캡틴 손 (Captatin Son)	가장 널리 사용되는 손흥민의 애칭이다. 현지의 토트넘 팬들은 본명보다 이 별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.

활동지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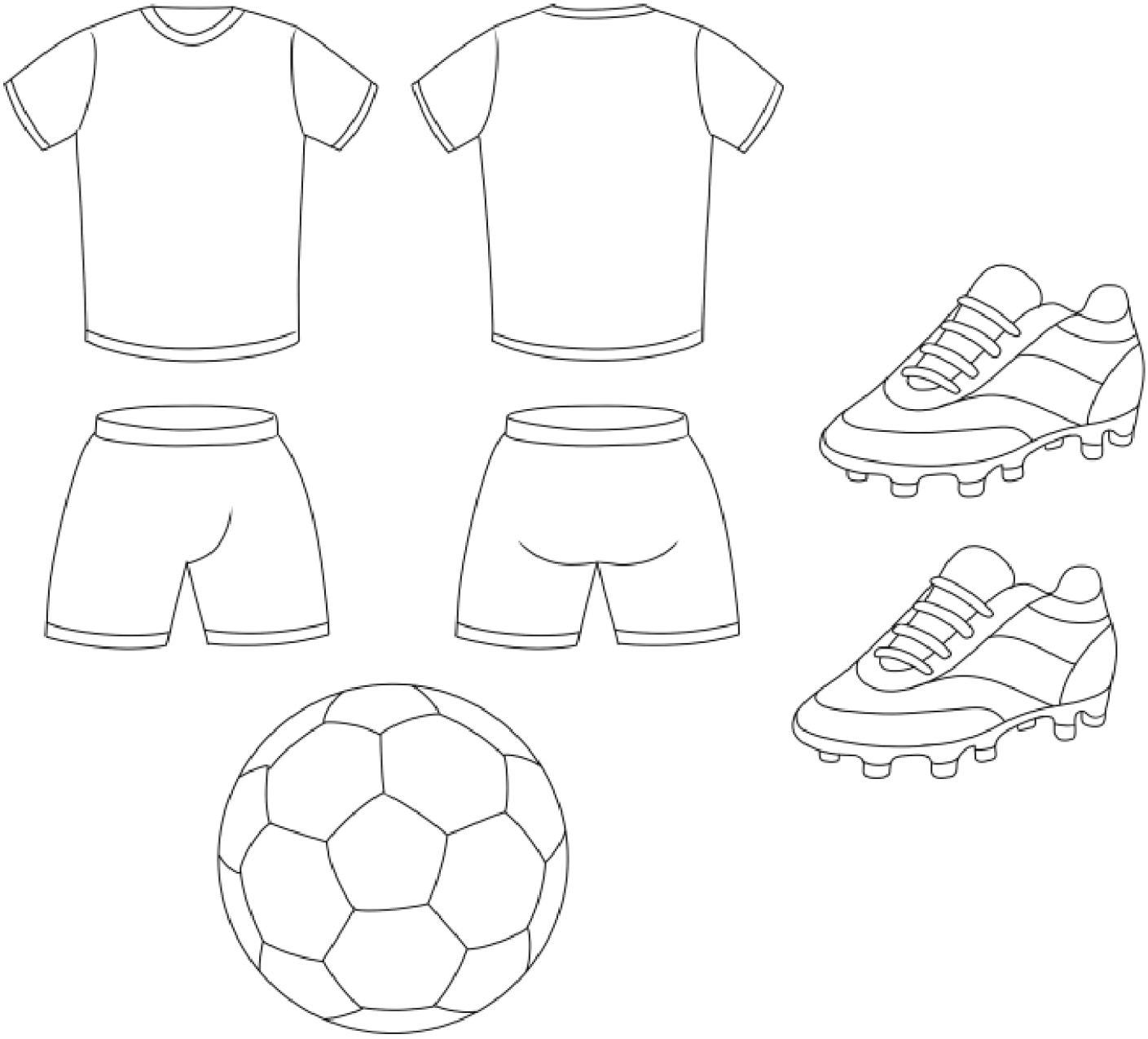
다음은 한국 스포츠인이 한 명언입니다. 잘 읽어 보고 누가 한 말인지 아래 빈 칸에 적어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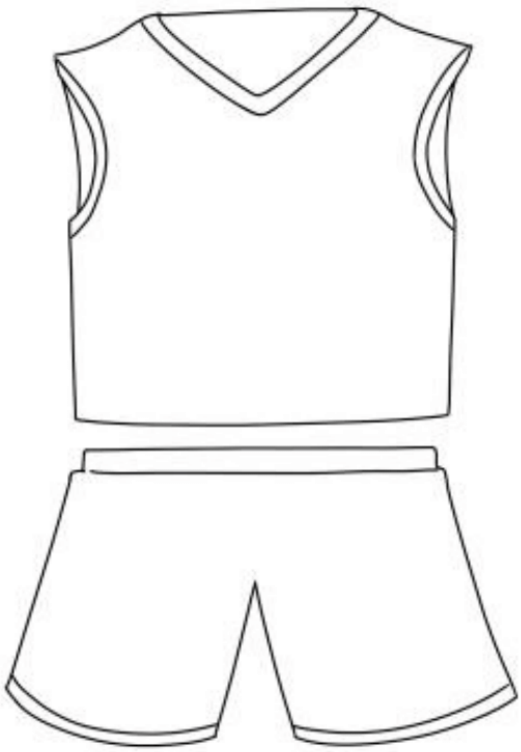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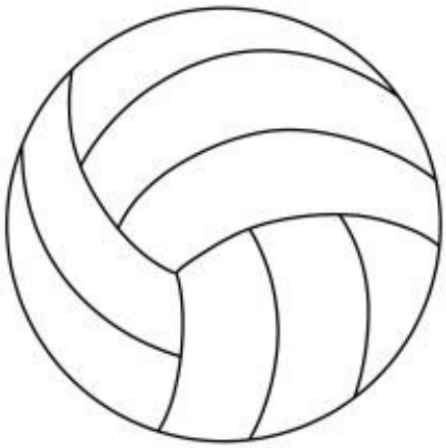
왜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? 변화구는 치기 어렵지만, 치기만 하면 회전이 많아서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에요. 지금 당신 앞에 치기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습니까? 그럼 축하합니다. 지금 당신에게 홈런을 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.

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. 근육이 터져 버릴 것 같은 순간,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,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…. 이런 순간이 오면 '이 정도면 됐어', '다음에 하자', '충분해'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.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.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.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이 끓지 않는다고 한다.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,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. 이 순간을 넘어야 그다음 운이 열린다.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.

활동지 2

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색칠해봅시다.



활동지 2

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색칠해봅시다.